

# '3퇴'와 평안

특간 2013년 10월 7일

'9평공산당' 책이 진실하고 정확하게 중공(中共)의 사악한 본질을 폭로한 이후 2013년 8월 22일까지 1억4천4백72만 명의 중국인이 해외 대기원(大紀元) 인터넷 사이트에서 중공의 당, 단, 대 조직 탈퇴를 성명했다.

## 보시라이 사건 중공이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진상

7월 25일 오전 검찰이 전 충칭시위서기이며 정치국위원인 보시라이를 '탐오,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세 가지 혐의로 지난시 중급법원에 공소했다고 중공 대변인이 발표했다. 보시라이의 죄명은 당초 알려진 6 가지에서 3 가지로 축소됐다. 이로써 중공이 아직도 보시라이 사건의 핵심인 정변모의와 파룬궁수련생의 장기를 살아있는 상태에서 적출한 행위를 은폐하고 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생체장기적출 흔막은 보시라이 사건에서 가장 은밀하며, 중공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으로,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부분이다.

중공은 가장 가벼운 죄명으로만 보시라이를 심판하고, 두 가지의 거대하고 치명적인 범죄 행위(정변 모의와 파룬궁수련생 생체장기적출)는 전력을 다해 덮어 감추는데, 이는 공산당의 권력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국가 기관이 파룬궁수련생의 장기를 살아 있는 상태에서 적출하는 범죄행위는 중공정권이 행하고 있는 파룬궁 탄압정책 하에서만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중공시스템의 '생체장기적출매매' 범죄 행위가 온 천하에 드러나면 그때가 바로 중공 정권이 해체되는 시기가 될 것인데, 그 죄악은 인류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장쩌민, 쟁청홍, 뤄간, 저우융캉이 보시라이의 정변음모를 지지한 것은 그들 '혈채파(血債幫)' 멤버들이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연장하려 하기 때문이다. 보시라이는 유일하게 적합한 박해집행자여서 그만이 파룬궁의 박해진상을 폭로와 닥쳐올 청산을 지연시킬 수 있다.

### 보시라이, 구카이라이는 생체장기적출의 최초 주모자

1999년 장쩌민은 보시라이(薄熙來)에게 "당신은 파룬궁(法輪功)을 강경하게 대응해야 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명확하게 말했다. 이를 들은 아내 구카이라이(穀開來)의 계책에 따라 다롄에서 파룬궁을 박해하는 한 방면에서만 '두각을 나타내어' 보시라이의 '재능이 뛰어나게' 되었고, 이로써 진급하는 기회를 얻었다. 보시ライ는 다롄의 파룬궁 수련생을 더 강경하게 탄압하고 장쩌민이 보내 준 자금으로 감옥을 증설했는데, 전국 각지에서 송환할 곳이 없는 파룬궁수련생을 모두 다롄으로 신고 갔다. 나중에 보시라이가 성장(省長)으로 간 랴오닝



성도 마찬가지였다.

보시라이는 랴오닝의 모든 노동교양소에 '온 힘을 다해 파룬궁수련생을 전향시키라'고 명령했다. 2003년 보시라이의 지시로 랴오닝성은 10억위안을 투자해 감옥을 개조했다. 선양 위훙구 마쓰자 한 지역에서만 5억여 위안을 들여 대지면적이 2000묘인 중국제1감옥성을 만들었다. 랴오닝성은 파룬궁을 가장 심하게 박해한 곳 중 하나다. 관운이 순조롭지 못했던 보시라이는 파룬궁수련생의 피눈물을 끊고 빠르게 출세하여 랴오닝성 성장이 되었다.

1999년에 보시라이는 한 외자기업의 설립을 허락했다. 하겐스 다롄인체표본제작회사를 세운 독일인 군터 폰 하겐스(Gunther von Hagens)는 사람의 시신에서 가죽을 벗기고 플라스틱을 주입해 인체표본을 만드는 생물가공화 기술을 발명한 사람이다. 공장 면적은 3만 평방미터로 전세계에서 가장 큰 인체 표본 생산기지다. 영국 '가디언지'는 2004년 보도에서 하겐스 다롄인체표본제작공장 부근에 노동교양소 3곳 있는데 파룬궁수련생을 대량 감금하고 있다고 했다.

하겐스는 시신과 인체표본을 매매하는 외에 파트너 쑤이훙진(隋鴻錦, 다롄의학대학 해부 교육연구실 주임)과 함께 중국인의 시신표본을 각종 자세로 만들어 전세계의 구경거리로 전락시켰고 많은 돈을 벌었다.

구카이라이, 보시ライ는 중공의 생체장기적출에 있어 최초의 주모자 중 하나다. 파룬궁수련생의 장기와 사체를 팔아 거대한 이익을 얻었으며, 파룬궁수련생을 잔혹하게 살해하고도 그들 부부는 '폐물 이용'이라 했다. 장쩌민이 '때려죽여도 그만이다'고 한 책임면제 보호가

있어 생체장기적출은 다롄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업종이 되었다.

매체와 인터넷에서 중국인체표본 가공공장과 시체전시에 관심이 집중되자, 관련된 공안, 감옥, 의학원, 의학대학, 흉십자회 등 참여부분도 점차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다. 이로 인해 인터넷 상에서는 끊임없이 논란이 일고 있다. 너무나 많고, 완전한 시신, 짧은 엄마와 8개월된 영아의 시신도 있어 표본을 봤던 사람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대체 어떤 가족이 자신의 부인과 출생하지 않은 아이의 신체를 전시용으로 기증하려 하겠는가?(아래 사진)

2004년 쑤이훙진은 또 '다롄홍평(鴻峰) 생물유한공사'를 등록했는데 주로 시신표본 제작과 전시를 하는 회사였



다. 전시를 빌미로 중국인의 시신을 팔아 쑤이훙진은 억만장자의 상인이 되었다.

이렇게 많은 시신은 어디에서 왔는가? 홍평공사와 미국제1전시회사가 설립한 'BODIES... The Exhibition(인체 전시회)'는 국제사회의 조사 압력 하에 정부측 사이트에 책임을 면하는 성명을 냈는데, 전시에 사용된 중국 국민의 유해가 중국 경찰 측에서 왔다고 발표했다.

시신 공장의 폐쇄성과 시신 공급원의 은폐로 인해 해외 시신전시는 중국대륙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런 특수 업종의 진상은 '왕리쥔사건'으로 인해 무대 전면으로 드러났다. 가공된 시신 중에는 보시라이와 구카이라이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박해 실해한 파룬궁수련생도 있다.

홍콩의 '애플데일리'와 AFP도 보시라이와 구카이라이가 직접 파룬궁수련생의 생체장기적출에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구카이라이와 보시ライ는 저우융캉 등 정법 위 고위층과 결탁해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 공화국 형사소송법 집행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 해석' 중 제348조의 사형 집행 후 시신 처리에 대한 누락을 발견하고 범죄성 해석을 통해 고문박해로 사망한 파룬궁수련생의 사체를 가족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했다. 공안국과 법원은 그 시신을 고가로 넘겼고, (뒤면에 계속)

시신가공공장은 인체표본을 만들어 전세계에 전시하여 매년 거액의 이익을 거두어 들였다.

## 왕리쥔, 수많은 생체장기적출에 참여

보시라이(薄熙來)가 테링(鐵嶺)공안국에 있던 왕리쥔(王立軍)을 진저우(錦州)공안국장으로 등용했다. 이후 왕리쥔이 진저우시공안국에서 설립한 ‘현장심리연구센터’는 ‘중국광화(光華)과학연구재단’의 ‘광화혁신상’을 수상했다. 수상 업적은 왕리쥔이 연구한 주사용 사망액의 제조법이다. 사형수를 되도록 빨리 고통 없이 사망하게 하는 것으로, 신선한 장기를 얻기 위해서다. 이것은 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군의 731부대보다 더 악랄하다고 할 수 있다! 왕리쥔은 스스로 ‘2년 동안 장기를 수천 번 적출했다’고 밝혔고, 왕리쥔이 주관한 진저우 ‘현장심리연구센터’는 파룬궁수련생의 장기로 이식 등의 인체실험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9년 12월 12일 ‘파룬궁박해 추적조사 국제조직(약칭 국제주적)’은 한 경찰로부터 녹취한 자료를 증거로 공개했다. 증인은 한 파룬궁수련생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장기를 적출 당하는 과정을 목격했다고 했다. 증인은 “당시 왕리쥔 충칭공안국장이 파룬궁수련생을 반드시 몰살시키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 경찰은 “2002년 4월 9일 선양군구종합병원 15층의 한 수술실에서 군의 2명이 30여 세로 보이는 건강한 중학교 여교사 수련생을 마취약을 주사하지 않고 멀쩡히 살아 있는 상태에서 심장과 신장을 적출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보시라이와 구카이라이(穀開來)는 영국인 헤이우드(Heywood)를 통해 영국에 회사를 설립하고 인체와 장기로 국제교역을 했다. 두 악인의 내막을 너무 많이 알고 있는 헤이우드가 국제 정보기관과 보시라이 정적의 비밀 조사를 당하게 되자 구카이라이와 보시ライ는 자신들의 범죄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 헤이우드를 독살했다.

왕리쥔은 헤이우드와 같은 종말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 2012년 2월 6일 청두 주재 미국영사관으로 도망가서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다. 미국 정부에 넘긴 각종 중공기밀문건에는 중공이 파룬궁수련생의 장기를 생체 적출하고 사체를 매매한 증거가 포함돼 있다.

‘왕리쥔사건’ 발생 후 다롄에 있던 하겐스 인체가공공장이 갑자기 문을 닫았다. 공장 문에는 2012년 2월 29일자 봉인 용지가 붙어 있었다. 하겐스 가공공장이 갑자기 사라진 것과 왕리쥔 도주 배후에 숨겨진 것은 바로 보시라이, 구카이라이, 저우융캉의 하늘에 사무치는 죄악이다. 지금도 중공은 살아 있는 파룬궁수련생의 장

기를 적출한 진상을 계속 은폐하고 있다.

## 중공이 살아 있는 파룬궁수련생 장기 적출

장쩌민(江澤民)집단과 중공은 ‘명예를 실추시키고, 경제를 파탄시키며, 육체를 소멸하라’는 정책을 내걸고 파룬궁을 박해하고 있다. 박해 수단 중 가장 엄중하면서도 극력 은폐하려는 것은 바로 파룬궁수련생을 대량으로 살해하는 것을 허용하고 강제로 장기를 떼내어 장기 매로 폭리를 취하는 것이다.

감금당한 파룬궁수련생의 장기를 매매하고, 살해당한 파룬궁수련생의 시체를 판매하는 죄악은 다롄에서 시작되어 중국의 다른 지역으로 신속히 전파되었다. 보시라이(薄熙來), 저우융캉(周永康)과 장씨 집단이 정법, 군대, 의료 계통을 이용해 살아있는 파룬궁수련생의 장기를 적출, 매매한 죄악은 중공이 온 힘을 다해 은폐하고 있으나, 도리어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중공이 선양(沈陽) 쑤자툰(蘇家屯)에 개설한 비밀 수용소에 수많은 파룬궁수련생을 불법 감금하고, 살아있는 그들의 장기를 적출해 판매하고 있는 사실은 내막을 잘 알고 있는 중국의 진중(金鍾) 기자가 2006년 3월 9일 외국 언론에 폭로함으로써 세상에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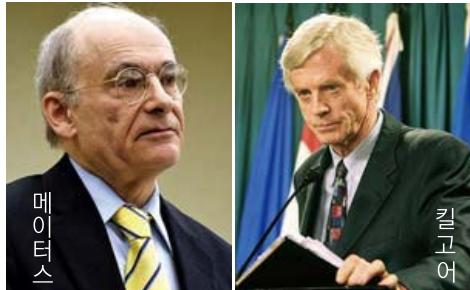
3월 19일에는 파룬궁수련생의 장기를 적출을 했던 의사의 아내 앤니(Annie)가 증인으로 나섰다. 그녀는 남편이 2001년 말부터 2003년 10월까지 쑤자툰 ‘랴오닝성 혈전중서의통합병원’에서 약 2천여 명의 파룬궁수련생 눈에서 각막을 적출했다고 증언했다. 이어서 다른 외과 의사들이 기타 장기를 적출했는데 모두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했다고 말했다. 앤니는 쑤자툰 지하수용소에 파룬궁수련생 5,6천명이 감금되어 있었고 그녀가 2004년에 병원을 떠날 때에는 약 2천 명이 감금되어 있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중국에 이와 같은 수용소가 36곳 있다고 제보했다.

2006년 4월 14일, 지난(濟南) 의료 계통에서 20여 년을 근무한 한 의료인이 죄악에 대해 침묵하며 양심의 고통을 받던 중 외국매체에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공개했다. 지난시에 있는 산동(山東)성 천포산(千佛山)병원, 산동성 경관종합병원, 치루(齊魯)병원, 산동성감옥, 산동성여자감옥 및 더욱 많은 감옥과 노동교양소가 서로 결탁해 불법감금당한 파룬궁수련생을 이용한 생체 장기창고 건립과 유지, 장



기 이식시장 중개활동에서, 나아가 생체장기 적출, 이식, 실험, 이익 분배 등으로 완전한 ‘협동 살인산업’을 형성했다고 증언했다. 특히 병원들은 모두 중앙 1급의 명확한 지시를 받고 파룬궁수련생의 장기를 생체 적출하는데 직접 참여해 지속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2006년부터 캐나다의 저명한 인권변호사 데이비드 메이터스(David Matas)와 캐나다 전 국회의원이며, 전 아태(아시아-태평양)담당 국무장관 데이비드 킬고어(David Kilgour)가 수집한 상세하고 심층적인 정보가 엄격한 검증을 거친 결과, 중공이 파룬궁수련생의 장기를 적출한다는 주장이 충분히 성립되었다. “광범위한 약탈은 계속 존재하고 있었으며, 오늘 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2009년 11월 그들은 수년간 끈기 있게 추적 조사한 보고서를 ‘괴비린내 나는 장기적출’이란 책으로 정리했다. 그들은 중공이 파룬궁수련생의 장기를 생체 적출하는 만행을 ‘이 지구상에 종래로 있어 본적이 없는 사악’이라고 형용했다.

2012년 7월 ‘국가가 장기를 약탈하다’가 출판되었는데, 4대주 7개 나라의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작가들이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 장기 이식 행위와 파룬궁수련생의 장기를 생체 적출하는 만행을 각기 다른 각도에서 분석했다.

중공의 생체장기적출은 세계 역사를 통틀어 가장 악랄한 행위이다. 이처럼 극도로 사악한 마성은 이미 인성의 범주와 인간 행위의 한계를 넘어 섰다. 중공은 중국민을 대상으로 하늘에 사무치는 죄악을 범해, 반드시 해제되는 결말이 정해졌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며 역사의 필연이기도 하다.

중공의 생체장기적출을 대하는 태도는 바로 중공에 대한 태도이며, 모든 관리와 국민은 정확한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자신을 위해, 민족을 위해 하나의 아름다운 미래를 선택할 수 있다. 정의의 편에 서는 사람은 자신의 도덕용기를 보여주고 아름다운 미래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박해자의 편에 서면 악한 세력과 한 무리가 되어 같은 운명을 맞게 될 것이다. 역사가 변화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이런 선택은 서글프고도 위험한 것이다.